성화랑 8호 11차시 성화랑 플러스

실천하는

신앙인

천원사

02

실천하는 신앙인

생각 열기

오늘 주제는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point

1 기쁨을 느끼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해본다.

2 체휼한 신앙인은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실천해야 함을 안다.

- 기쁨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지만,
  이 기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과제입니다.
  모든 것이 기쁘면 기쁜 자기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만물과 더불어 화동할 수 있고
  만물의 상대적 기쁨으로 남겨 놓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하나님의 뜻길에 있어서 하는 일도 재미있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재미있고 힘들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생활환경에서 이것을 뿌리박아야 됩니다. (천3.3.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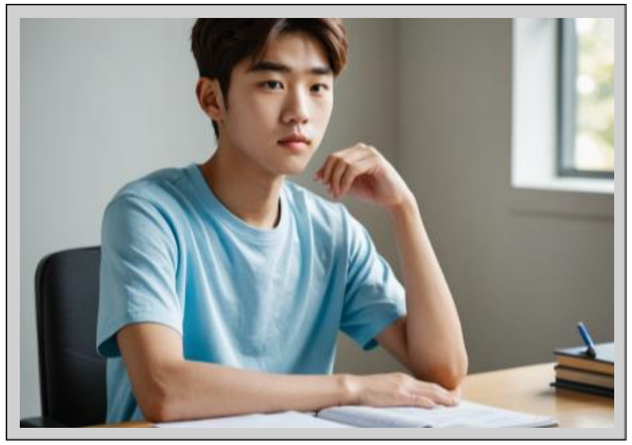
-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최초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실감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자녀의 입장을 복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으로 삼고
  천주에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심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딸로 설 수 없습니다. (22-205)

-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선생님을 통해 체휼한 신앙을 실천 무대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천국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볼 때, 내가 둘째 번이면 실천 환경은 셋째 번입니다. (천8.1.1:33)

함께 나눠요

기억나는 단어 나누기

무슨 단어가 기억에 남았나요?
생각나는 걸 모두 3번에 적고 공유해요.



기억에 남는 구절 나누기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적어보고
짝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떠오르는 질문 나누기

서로 떠오른 질문을 공유해요.
질문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눠요.

지난 주 말씀 review

1. 우리는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해야 한다.
2.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하면 의식을 초월하여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고통에 사무친다.
   인격의 완성을 이루고 사람과 만물을 참사랑할 수 있다.
   하늘부모님을 진정으로 알고, 슬픈 심정을 풀어드리고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
3. 우리가 하늘부모님께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기보다
   하늘부모님의 슬픈 심정과 참사랑을 깨닫고 위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신앙인의 실천

슬픔을 당하고 나면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땅 위에서 탕감하는 과정 중에 참 선한 입장에서 슬픈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선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열만큼 당하면 기쁨이 천만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느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는 것입니다.

열만한 슬픔을 넘었어도 하나만한 기쁨밖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기쁨은 며칠 만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늘을 따라 나가는 길은 진정한 슬픔을 당하면

진정한 기쁨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천9.3.4:13)

사랑이 인연된 곳에는 나의 모든 신경이 충격적인 자극을 일으킵니다.

곧 사랑은 나로 하여금 제일 가까운 곳에 있게 합니다.

사랑이란 제일 가까운 동시에 나와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쁨의 자극과 충동을 전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3.1.2:38)

기쁨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지만,

이 기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과제입니다.

모든 것이 기쁘면 기쁜 자기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만물과 더불어 화동할 수 있고 만물의 상대적 기쁨으로 남겨 놓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하나님의 뜻길에 있어서 하는 일도 재미있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재미있고 힘들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생활환경에서 이것을 뿌리박아야 됩니다. (천3.3.2:50)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선생님을 통해 체휼한 신앙을 실천 무대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천국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볼 때, 내가 둘째 번이면 실천 환경은 셋째 번입니다. (천8.1.1:33)

실천하는 신앙인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모든 것을 탕감하고 승리한 터전을 세우신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드리는 자리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참부모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실천해 가면 됩니다. 행복은 자기의 것으로만 갖고 있으면 작아지고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종족·국가·세계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한학자총재 말씀선집3권 324p)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최초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실감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자녀의 입장을 복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으로 삼고 천주에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심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딸로 설 수 없습니다. (22-205)

Keypoint. 하늘부모님의 자녀임을 체휼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공과 <신앙의 기쁨>

오늘 말씀 듣고
어떤 걸 느꼈니?

지금까지 종교는 자신의 구원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 나왔습니다.
그런 종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끝이 옵니다.
지금은 아무리 세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 번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종교와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가는데 혼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말라고 해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9.3.5:12)

기쁨과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줄 수 있기를...